

Sermon Summary 18 October 2015

<요기 38: 1-7, 마가복음 10: 32-45>

저는 지난주 어떤 분과 함께 수련회를 리드하기 위해 Bowral 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다왔습니다. 그곳은 라일락과 다른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고, 블루벨들, 데이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행복한 모습으로 만발해있었고, 철쭉과 다른 많은 종류의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곳 이었습니다.

수련회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의 각각 다른 교회 배경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복음은 현재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얘기들도 나눴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허용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성찰과 토론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 선포 사역, 치유와 용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중심적 역할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감을 주시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상기 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주 성경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내안에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옙을 생각할 때는 한 남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심각한 손상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그럴듯한 논거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옙의 친구들이 옙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틀안에서 끼여 맞추려 애를 쓰며 내놓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옙은 자신의 진실성과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옙의 친구들이 한 것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 하지 않았던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옙은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아 절망하는 옙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옙아, 내가 여기에 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라며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옴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너의 논쟁과 말로 하나님을 통과하려고 시도하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우리는 아마 "불쌍한 옴!" 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근본적인 진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의 한가운데를 강타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심하실 수 있으신지?

옴기는 우리를 다시 겸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에 신발을 벗고 걸어야하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이세상을 창조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약 네가 이해한다면 이야기 해라."

우리는 단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기서 시편 8 편이 생각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돌보신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동안, 욥은 하나님의 항상 신비로우심을 욥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사업의 광대함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를 죽이시거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하찮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욥을 자신의 자리, 그의 올바른 자리에 두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행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계실 수 있게 할 때, 13 세기 여성 신비주의자, 줄리안 노위치(Julian of

Norwich)가 얘기한 것처럼 "만사 형통 할 것이다, 만사 형통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 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찻잔 만한 하나님(a tea-cup God)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찻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욕기를 읽을 때 그 찻잔은 작은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 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질문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엄청난 이해의 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 발생한 한 에피소드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마가의 기록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마가의 시대 때 그의 공동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적혀있습니다.

우리시대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같은 오해의 말들을 듣습니다.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은 수직적이고 특혜의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에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맨 밑바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감동받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느낌은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 흥분해서 주님 앞에 놓여진 비난, 조롱, 멸시, 채찍질, 죽음, 심지어 부활에 관한 분명한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못하고 아니 짐작의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보기에도 고통스러운 오해임을 보여줍니다.

그로인해 예수님께서 예비된 것을 직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수록 그곳에서 더 고립되어지십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보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 다른 사람들보다 영광의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하는 욕망에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적절한 질문이 예수님을 많이 아프시게 했을 텐데도

예수님은 분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앞으로 닥칠 공포스러운 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을 다시 보여줍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가복음이 황량함과 두려움으로 끝나는지를 압니다. 그 제자들은 골고다의 끔찍한 장소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하고 그 의미를 의지하는 능력이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다시 돌아오면,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반응인 분개함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지금까지 그와 함께 걸어온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제자들의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힘과 권위의 방법, 사회의 구조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아래가 바뀐 왕국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를 예약해두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이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가의 시대에도 또 현재 우리 시대에도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섬김은 우리가 좋은 이상으로 포장할 수 있는 로맨틱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결과라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신실함을 추구하며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시도 할 때 우리는 탈진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의 신앙까지도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 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그릇된 겸손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괴로운 노예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면서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 된다는 것과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댓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묻는 것 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종 또한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가 동경하고 또한 모든 이에게 자유와 용서를 그리고, 치유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뒤집는 복음서의 가치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며 처음부터 완전히 자신을 포기 하며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제자로서의 불안한 경로를 걸으면서도 혼자가 아님을 앞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천국에 우리 자리를 예약해두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또 그 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또한 즐거운 것 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 우리의 오해들은 주님께 의해서 이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질책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삶과 사랑의 방식인 말씀으로 우리 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섬김의 왕 예수님의 모델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제공된 모델입니다. 십자가는 권력과 정치로 행해지는 어떠한 것들도 받아들이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부활은 권세의 뒤집어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까지도 뒤집어 놓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주위에 볼 수 있는 다른 모델들은 거부하고 이 왕국방식 사랑의 섬김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된 것은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것은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한 삶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삶에 원천이 되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이시며, 옴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가장 깊은 겸손함으로 행동하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함으로 반응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믿고 기도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